



2023년 기획연구

Part. 4

연민에서 박애까지: 기사문에 반영된 한국 사회 기부 행위에 대한 개념거리 측정과 시민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자 **노법래** 국립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책임연구자

노 법 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주요경력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 시간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편집위원장

연구실적

- 2023. A longitudinal regional study on the role of fundraising organizations affecting local giving levels in South Korea.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주저자)
- 2023. 기부 참여에 관한 국가비교 연구-140개 국가 종단 자료에 대한 예측적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주저자)
- 2023. 기후위기를 둘러싼 한국 사회 논의 흐름과 사회정책 재설계예의 함의: 2000년 이후 기사 문에 대한 자연어 처리와 토픽구조 변화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주저자)
- 지역 환경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위성 이미지 처리(satellite image processing)와 행정자료의 결합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주저자)
-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자원봉사활동 변화의 실제-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주저자)
- 2021. 2000년대 이후 의제지형 변화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 차별과 혐오 의제를 중심으로. (서울시 NPO 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의 기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연민과 박애에 두고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민은 한정적이고 임시적인 기부 성격을, 박애는 공동체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체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인식 변화 측정을 위해서 박애와 연민을 가로지르는 다섯 개의 하위 차원을 구성하고 '기부'를 검색어로 기사문을 수집한 뒤, Concept Mover's Distance(CMD) 기법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쳤다. 한국 사회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은 연민과 관련된 전통적인 성격이 부분적으로 유지, 변화하는 가운데 박애에 가까운 성격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부 주체와 대상,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한정적/임시적 성격에서 점차 보편적/체계적 성격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키워드: 기부, 연민, 박애, 개념거리 측정, 기사문 분석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약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기부에 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인식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의미로 구성된 차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위로서 기부에 대한 인식을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의미의 차원으로 **연민**과 **박애**를 설정하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시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민**의 성격이 강한 기부는 한정적이며 임시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으로 **박애**는 공동체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는 체계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실제 이 두 가지 축을 통해 살펴본 변화의 내용적 측면이 이런 지점을 뒷받침하는지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기부”를 검색어로 기사문을 수집하고 자연어 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 기사문 속에 담긴 의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격적 분석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Concept Mover’s Distance(CMD) 기법을 통해 기사문의 의미를 관찰하고 그 변동을 살펴보았다.

2. 측정 개념의 구성: 연민과 박애

박애는 타인에 대한 선의나 친절한 감정으로,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박애의 실천을 존재를 확장하는 기쁨의 과정으로 보았다. 스피노자는 박애

의 실천은 우리의 이성적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본성에 따르는 것은 기쁨의 정서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박애는 곧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Kisner, 2009). 박애의 실천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도 기쁨의 정서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연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슬픔의 감정으로 분류했다. 슬픔은 수동적 정서에 따른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위축시키고,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행복의 추구는 그 자체로 윤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슬픔의 정서는 윤리적이지만 못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강자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존재감이 연민의 이면에 있는 감정으로,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그 감정이 상대가 자신보다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만 유지되는 수동적인 정서에 머무는 약한 존재로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강신주, 2013).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연민과 유사한 개념인 동정(sympathy)은 상대에 대한 가련함(pity), 자기중심적 태도(ego), 의무감(obligation)에 의한 추동 등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원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공감(empathy)에 따른 관계 형성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Sinclair et al., 2017)

박애가 연민의 감정에 비해 더 적극적인 정서라는 점은 전자가 주로 공감에 의해 지지되며, 후자는 동정의 정서적 상태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과도 관련된다. 동정과 연민은 상대의 열등함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행위라는 점에서 일시적이다. 그와 같은 우월적 정서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수동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민은 현재의 힘의 불균형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나와 상대를 수평 관계로 보고 처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는 과정은 연민이 유지되는 힘의 불균형 상황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연민과 달리 박애의 감정은 타인과 자신의 공통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평적이고, 연민의 정서와 같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행위로 이어지며, 그 방향 또한 일시적이기보다는 지속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박애를 자신과 유사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정서적 자극을 통해 대상에게 친절하려는 욕망으로 설명했다(강신주, 2013). 이는 박애가 같은 인간이라는 동질성에 기반하면서 상대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상태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대와 함께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상태라는 점을 뜻한다.

텍스트에서 박애와 연민 사이의 개념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들을 식별하고 차원별로 속성을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민과 박애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시도한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이 두 행위가 타인의 불행에 대한 반응이라는 공통점과 앞서 설명한 차이점에 기반하여 하위 차원과 속성을 탐색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1]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연민과 박애를 구성하고 있는 차원과 속성을 정리한 것이다. 타인에 대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개념은 각각 개입의 강도, 추동되는 감정, 대상의 주요 특성, 행위 주체의 일반적 성격의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관계 맺음의 속성 또한 일시적인 감정적 추동 여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점이 기부 행위에 있기 때문에 속성은 그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연민에 따른 기부는 명확한 권력 관계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시혜적 성격이 강하며, 이는 주로 경제적 자원의 확보에서 더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주체(부자)에게서 열등한 물질적 지위를 접하는 대상(빈곤집단)에 대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애의 감정은 보다 평등한 관계 가운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행위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기보다는 공동체의 개선을 향한 시민의 자발적 행위라는 측면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연민-박애의 하위 차원들



3.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기부”를 검색어로 수집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언론사의 기사문을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언론사는 분석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기사문을 생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중복을 제거하고, 200자 미만의 단신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최종 분석 대상 기사문은 114,927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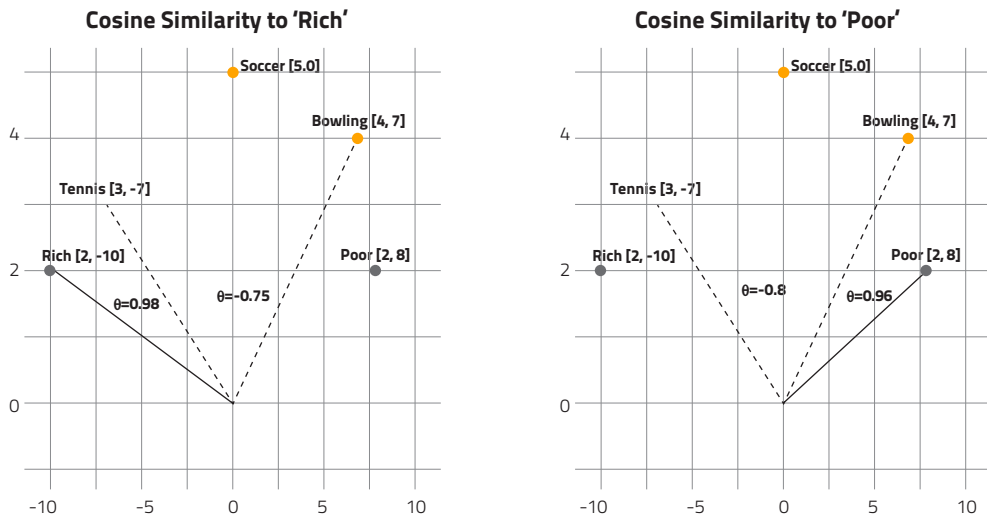
본 연구의 개념거리 측정 방식은 별도의 단어 분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다만, 웹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포함된 불필요한 단어나 본문에 딸린 하이퍼링크, 특수문자 등을 제거하는 기초 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사문에 담긴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어 벡터(word vectors)를 활용하여 앞에서 제시한 주제어(key concepts)와의 의미상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단어 벡터는 선택된 말뭉치(corpus)에 출현하는 단어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단어 간 의미상 유사성과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된다(Milkolov et al., 2013).

[그림 2]는 워드 벡터를 활용하여 단어 간 개념거리를 측정하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단어 간 거리는 워드 벡터 내에서의 코사인 거리를 통해 측정된다. 예를 들어 좌측 그림은 “부유함(rich)”에 보다 가까운 스포츠가 무엇인가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볼링에 비해 테니스가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우측의 그림을 통해 “가난함(poor)”의 경우 테니스에 비해 볼링이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 학습에 활용된 텍스트에서 부유함과 관련된 내용에 볼링보다 테니스가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이며, 가난함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그 반대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2] 워드 벡터를 활용한 개념 간 거리 측정 예시(Taylor & Stoltz, 2020)



기부를 검색어로 추출한 기사문에 대해서 본 연구는 연민과 박애와 관련된 10개의 단어와 기사문에 속한 단어와 평균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본 분석에서 활용하는 워드 벡터는 위키피디아 한국어 버전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위치 좌표를 300차원에서 구현한 자료를 이용했다. 단어 간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좌표계가 복잡해질수록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자료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300차원의 좌표계를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개념거리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Stoltz & Taylor(2019)에서 소개된 개념거리(Concept mover's distance, CMD)를 기본적으로 차용했다. CMD는 앞서 소개한 워드 벡터 공간에서 두 단어 간 거리 계산을 통해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 개념거리 측정에 사용하는 기준 단어와 텍스트 내용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문장이나 글 전체를 단위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사문 전체를 분석 단위로 하여 [그림 1]에서 제시한 10개의 단어와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을 수행했다.

4. 분석 결과

1) 차원별 측정 결과

(1) 시간: 일시적-지속적

[표1]은 연민과 박애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 가운데 시간적 속성에 대한 관찰 측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는 상반되는 두 개념인 “일시적”, “지속적” 각각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상위 기사문의 제목을 제시하였다. 결과 제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념 사이의 거리를 역으로 치환하여 값이 클수록 개념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가 생산된 시기는 각 연도를 상반기와 하반기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시간 속성과 관련된 기사는 내용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이면서 두 개념이 명료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다만, “일시적” 성격을 지니는 기사문의 경우 한시적인 후원이나 기부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과 높은 유사성을 지니는 기사 가운데는 기부 문화 정착이나 제도 변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장기적 성격을 지니는 기사가 포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일시적-지속적 차원과 주요 기사문

시기	제목	일시적	시기	제목	지속적
2009_1	여신금융협회, 저소득층 위한 급여기부	4.554	2010_1	샘표식품, 한국여성수리과학회 1억원 기부금 약정	5.486
2005_2	구로구, 장애인 보장구 무료 대여	4.398	2003_1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위해선 기업 50% “세제지원 필요”	4.447
2004_1	일자리 창출 통한 빈곤퇴치 정책 펼쳐야	4.104	2011_1	경남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나서	4.368
2006_1	사회적 일자리 6000명으로 확대	3.959	2008_2	[함께가는 사회 상생경영—amco] 中企 자립능력 높이기 적극 도와	4.345
2001_2	[與 예비주자 후원회정치/ 선관위 입장] “단속못해”	3.921	2007_2	기업 기부문화 바뀐다	4.164
2009_1	신용회복위 소액금융지원사업	3.870	2006_1	인터파크, 작은도서관 만들기 연중 캠페인	4.007
2009_2	“사회적 기업, 기업에 준조세로 비칠 수도”	3.865	2016_2	교통안전공단, 정보 소외계층에 PC 기부 및 정보화 교육	3.987
2009_1	동국대,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	3.856	2010_2	티켓몬스터, ‘소셜 기부(So speCial Give)’ 시작	3.973
2017_2	한돈협회, 취약층 돼지고기 기부	3.850	2006_1	“기업들, 기부-사회공헌 전략적 연계”	3.925
2003_1	[일반] 기업사회공헌, CEO관심에 달려-전경련	3.837	2009_1	[원주]천사 WIN-WIN 운동’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878

(2) 태도: 소극적-적극적

두 번째 하위 차원인 기부를 통한 개입의 강도와 관련한 개념 측정 결과를 [표2]에서 주요 기사문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소극적” 성격에 가까운 기사문들의 많은 경우가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인 성격과 가까운 기사문들은 구체적인 기부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소극적-적극적 차원과 주요 기사문

시기	제목	소극적	시기	제목	적극적
2003_2	[지금 여론은] 기여입학제 반대 59.8%	4.786	2011_2	경제계 '교육기부 운동' 적극 나서	5.185
2000_2	[경제스코프] 기업부담 높이는 준조세관행 바뀌어야	4.209	2010_1	샘표식품, 한국여성수리과학회에 1억원 기부금 약정	5.081
2003_1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위해선 기업 50% “세제지원 필요”	4.123	2009_1	일자리 창출과 나눔경영 실천하겠습니다.	4.709
2016_2	[서울경제신문 대기업 긴급 설문] “기부금 내더라도 지금같은 방식은 안돼”	4.005	2008_1	전경련 “신뢰회복위해 사회적 책임 강화”	4.599
2011_2	국민 47.1%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찬성”	3.966	2001_1	전경련,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4.381
2003_1	[일반] 기업사회공헌, CEO관심에 달려-전경련	3.960	2006_1	“기업들, 기부-사회공헌 전략적 연계”	4.380
2007_2	우리사회의 청렴한 지도층은 10명 중 3명도 안 돼	3.846	2006_1	“기업 사회공헌 활동 국민 평가 낮아”	4.333
2008_2	제약협 “연세의료원 기부금 수수금지선언 환영”	3.822	2009_2	“사회적기업 지원은 반시장 개념 아니다”	4.250
2010_1	기부확산 위해 세제 지원 늘려야..58%	3.807	2009_2	부산, 프로보노협의회 전국 최초 출범	4.242
2018_1	산업부, 대기업에 또 ‘산업혁신운동 기부금’ 요구	3.779	2009_2	곽승준 “기업 약자 배려, 몇백억 광고보다 효과적”	4.239

(3) 감정: 불쌍함-유대감

본 연구에서 기부 행위와 연관되는 감정의 차원은 “불쌍함”, “유대감”으로 나누었다. [표3]은 이 두 개념과 유사성이 높은 주요 기사문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불쌍함”의 경우 다양한 주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사문이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나 봉사활동과 관련된 노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대감”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부 실천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가 기부를 통한 유대감 표출에 중요한 단위임을 보여준다.

[표3] 불쌍함-유대감 차원과 주요 기사문

시기	제목	불쌍함	시기	제목	유대감
2006_1	[천자칼럼] 평판	4.548	2007_2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식	4.128
2009_1	기부보다 더 값진 자원봉사	4.452	2006_2	한국토지공사-입주민에 도서관등 무상기부	4.012
2008_2	[살며 사랑하며-김정경] 문근영과 스리랑카 소년	4.385	2018_1	이노비즈협회, 2018 희망나눔 프로젝트	3.917
2009_2	[매경춘추] 나눔을 배우다	4.321	2018_2	NH농협카드, 농촌사랑운동 후원 공익기금 5억원 기부	3.841
2004_1	“봉사와 나눔의 바이러스가 퍼졌으면...”	4.203	2007_2	2015년까지 매년 100억 출연 공익사업[사회공헌기업/GS칼텍스]	3.828
2015_1	매출은 '사상최대' 기부는 '질کم'	4.142	2008_2	KGB택배, 사회공헌사업 지원 적극 나서	3.770
2013_1	폐지 할머니가 기부한 '세상 가장 따뜻한 10만원'	4.119	2015_1	용인시, '개미천사(1004) 기부운동' 업무협약	3.729
2013_1	[김상희 풍경소리] 나눔과 기부는 곧 복을 쌓는 일	3.999	2018_1	이노비즈협회, 2018 희망나눔 프로젝트	3.705
2017_2	첫 독자 원고료 5000원, 기부에 썼습니다	3.972	2005_1	LG전자 '공헌 현장' 선포 기부·봉사 등 확대키로	3.704
2008_1	작은 나눔이 큰 행복으로 돌아오다	3.958	2009_1	[원주]천사 WIN-WIN 운동'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696

(4) 대상: 빈곤(자)-공동체

[표4]는 기부 대상에 대한 하위 차원인 “빈곤(자)”과 “공동체”에 대한 텍스트 개념거리 측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빈곤”의 경우 빈곤 집단을 특정하거나 해외 원조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동체”의 경우는 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거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이 강조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에 대한 차원은 비교적 명확하게 텍스트가 분별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표4] 빈곤(자)-공동체 차원과 주요 기사문

시기	제목	빈곤	시기	제목	공동체
2005_1	빈곤학생 초청 '갯스펠' 공연 제공	6.983	2002_1	[표] KDI.매경 교육개혁안 비교	4.242
2009_1	여신금융협회, 저소득층 위한 급여기부	4.988	2017_1	광양 송보 7차 주민 재능기부 작은 도서관 운영	4.194
2006_1	<표> 2005년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건수 상위20위	4.801	2009_2	지식과 학습의 잔치 속으로	3.916
2008_2	<표> 금융소외자 지원 대상 및 재원	4.722	2000_1	[社告]'나눔의 경제공동체' 본사-삼성경제研 주최 심포지엄	3.912
2009_2	자선 패션쇼 연 패션 디자이너 이광희씨	4.612	2007_2	기부문화 '범시민 운동' 전개	3.850
2009_2	아프리카에 희망을'	4.582	2015_2	[대전·대덕] KAIST-가나안농군학교, 교육 기부 협약 체결	3.843
2009_2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하여'	4.335	2015_1	용인시, '개미천사(1004) 기부운동' 업무협약	3.800
2018_1	신일산업, 에너지 빈곤층에 1천500만원 기부	4.296	2007_2	현대차 문화예술 브랜드 'H-art', 소외된 이웃들과 문화를 나눔	3.742
2018_1	광주신세계, 저소득층 아동에 1000만원 기부	4.257	2012_1	[부산·경남]부산 산복도로 폐·공가의 새로운 변신	3.722
2007_2	빈곤 아동들을 위해 기부합시다	4.136	2018_2	NH농협카드, 농촌사랑운동 후원 공익기금 5억원 기부	3.718

(5) 주체: 부자-시민

[표5]는 기부 주체와 관련된 하위 차원에 대한 거리 측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부 주체를 드러내는 두 개념은 “부자”와 “시민”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부자”의 경우 국내외 거부들이나 대형 재단의 기부 실천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의 경우 다양한 시민들의 기부 활동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주체에 대한 개념거리 측정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구분이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차원을 측정하는 데 활용한 단어가 높은 구체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5] 부자-시민 차원과 주요 기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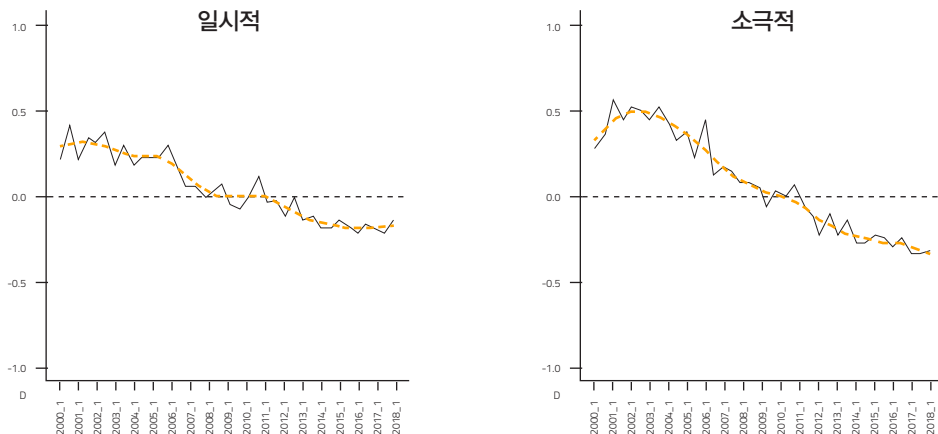
시기	제목	부자	시기	제목	시민
2014_2	버핏, 2조9000억원 '통큰 기부'	5.370	2012_1	1만 세무사 세금관련 '재능기부' 나섰다	4.494
2009_1	빌 게이츠, 호주 대학에 170억원 기부	5.201	2015_1	"6분 걷고 기부도 하고"... 28일 광화문 광장	4.395
2005_2	한림대 기부금 9년간 1,300억	4.792	2010_2	신연희 강남구청장, '희망 동전' 전달	4.121
2008_2	중금용위기가 부호 순위 바꿔	4.665	2009_2	동병상련' 쪽방 주민·노숙인도 기부	4.119
2006_1	이건희 삼성회장 부자 장학재단에 주식기부	4.474	2016_1	부산 건강기부재단 등장	4.073
2005_2	"젊은 갑부가 자선 기부 가장 야박"	4.357	2004_2	재기불자운동 펼칠 '우리함께회관' 개관	3.975
2006_1	워렌 버핏, "재산 37조원 기부하겠다"	4.318	2018_1	재능기부로 빛과 소금역할' 울산 기록문화연대 출범	3.968
2011_2	부의 차이는 컸으나 '기부의 차이'는 작았다	4.291	2018_1	재능기부로 빛과 소금역할' 울산 기록문화연대 출범	3.968
2017_2	빌게이츠, 말라리아 모기 퇴치에 또 5조 원 기부	4.280	2010_1	기부나눔·선진시민의식, 광고로 만들 대학생들~	3.949
2013_2	그룹 틴탑, 쌀 1.93톤 서울 강남구에 기부	4.117	2008_2	도교육청-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1계좌갯기 운동 협약	3.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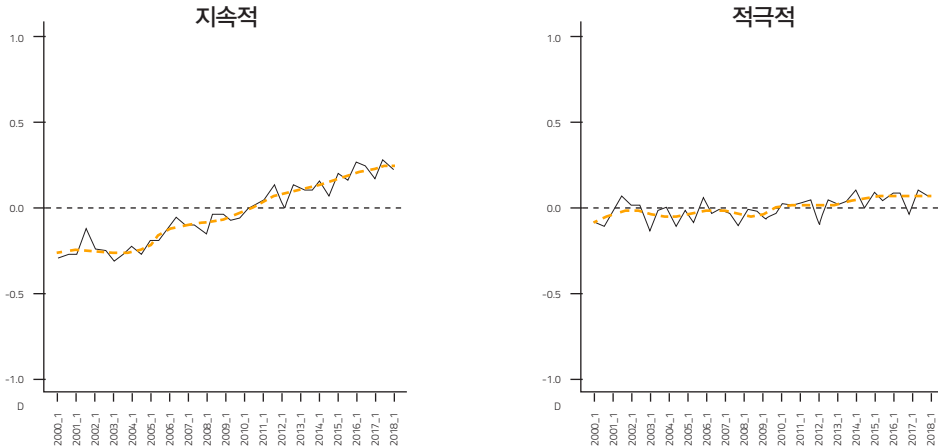
2) 차원별 변화 추이

지금부터는 각 차원별 변화 추이를 관찰한 결과를 다루도록 하겠다. 아래 [그림3]은 시간과 태도 속성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실선은 시기별 평균값을 나타내며, 점선은 평활화(smoothing) 처리한 추세선이다. 분석의 시간 단위는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반기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시적”, “소극적” 성격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적” 성격의 내용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극적” 성격의 기사문의 성격은 명확하게 관찰되는 변동 없이 조사 기간 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성격의 경우 0을 중심으로 관측값이 시기에 따른 큰 변동 없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기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한시적이고 적극적 측면이 떨어지는 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시간적 차원을 구성하는 “일시적”, “지속적” 속성의 경우 상반되는 트렌드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차원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차원을 구성하는 개념 또한 적절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태도와 관련된 속성의 경우 “소극적” 성격의 값이 감소하지만 그 반대 개념으로 상정한 “적극적” 성격의 값이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은 추후 이 차원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함의한다.

[그림3] 시간, 태도 속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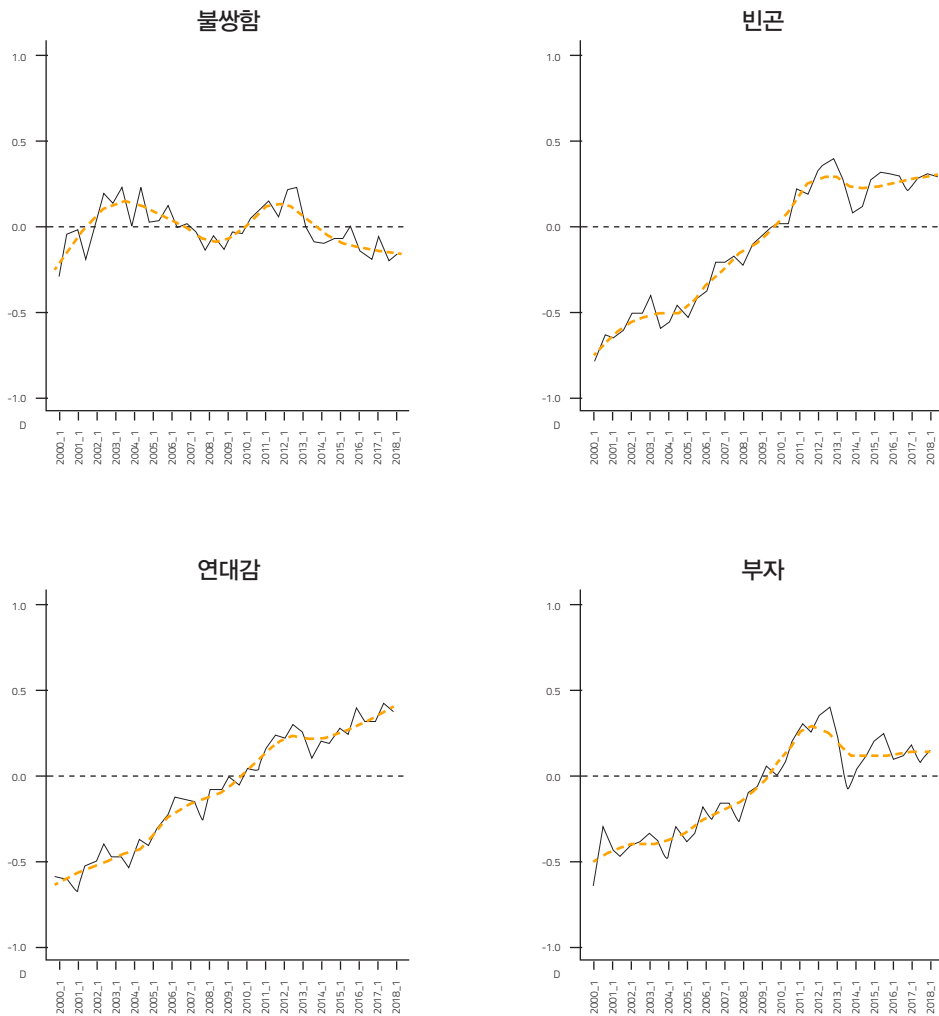
[그림4]는 감정, 대상, 주체 속성의 개념거리 변화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감정을 구성하는 두 개념인 “불쌍함”과 “연대감”의 경우 다소 다른 시계열적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쌍함”은 분석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대감”의 경우 일관되고 빠른 수준으로 측정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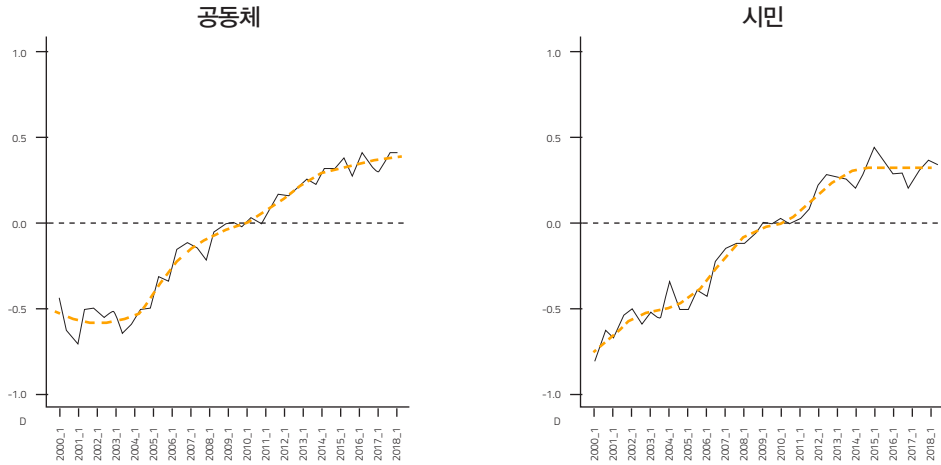
대상과 주체에 대한 두 하위 차원의 경우는 상반되는 것으로 설정한 각각의 개념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대상과 관련된 차원을 구성하는 두 개념인 “빈곤”과 “공동체”의 경우 부분적인 파동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반영하는 텍스트의 양이 증가하면서 양자를 아우르는 내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기부의 전통적인 대상으로서 빈곤층에 대한 내용이 꾸준히 다뤄지면서 동시에 보다 확장된 대상인 공동체 전반에 대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포함된다 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하위 차원에서 관찰되는 이런 개념적 복합성의 증가는 기부 주체에 대한 하위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기부 주체 차원을 구성하는 두 개념인 “부자”와 “시민”의 경우에서 모

두 상승 추세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기부 대상을 구성하는 개념과 유사하게 전통적인 기부의 주체로 상정되는 부유한 계층을 다루는 내용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혼합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부의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시에 기부 문화의 확대에 따른 관심의 증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4] 감정, 대상, 주체 속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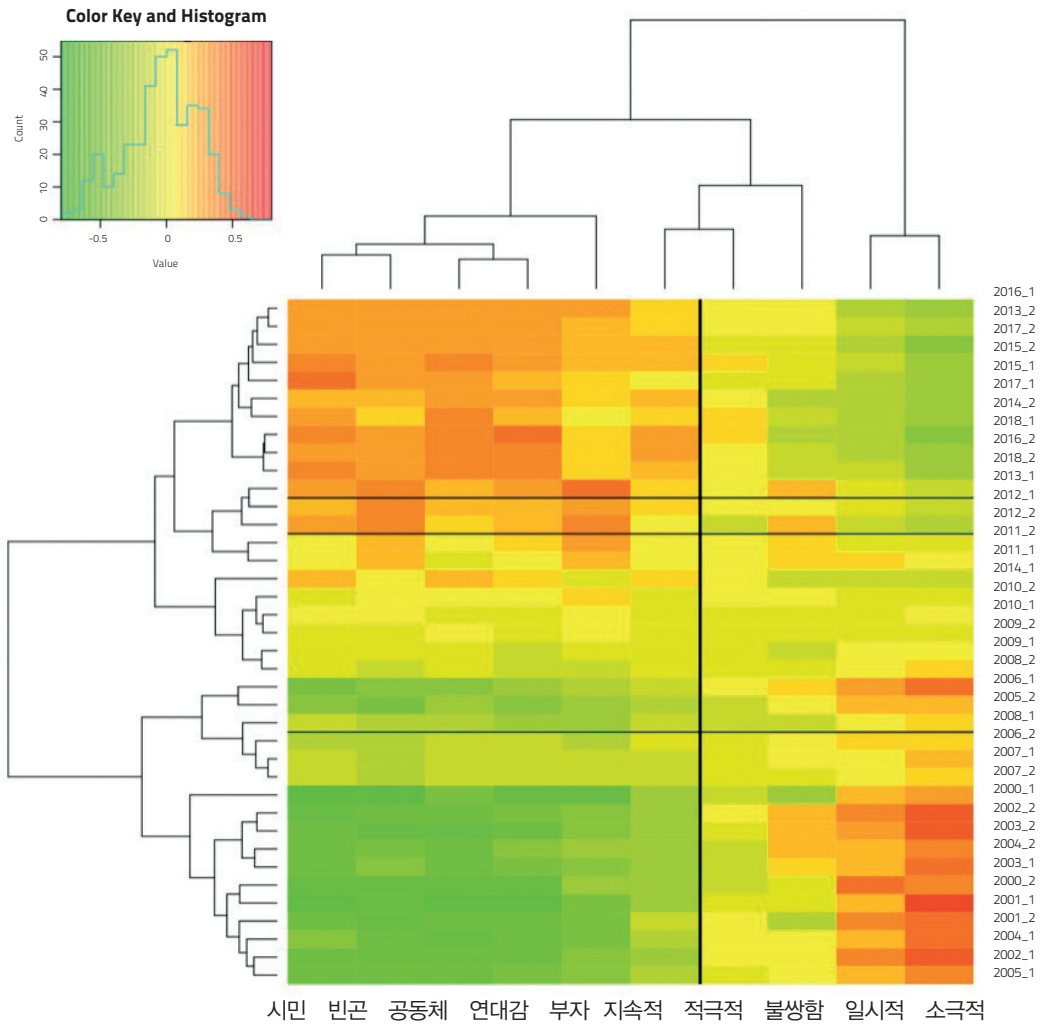




[그림5]는 시기와 개념의 군집화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진하게 표현된 셀일수록 가로축을 구성하는 각 개념에 대한 측정값이 큰 시기를 뜻한다. 셀을 구획하는 실선은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군집의 경계를 뜻하는 것이다. 하위 차원을 구성하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소극적”, “일시적”, “불쌍함”, “적극적” 개념이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앞의 세 개념은 연민을 뜻하는 것으로 상정되었으며, “적극적”은 박애의 하위 차원을 구성하는 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군집화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개념 구성이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면서도 보다 명확한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시기에 대한 군집화 결과를 놓고 볼 때,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박애를 구성하는 개념이 주요하게 포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계가 되는 시점에서 부분적인 변이는 관찰되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박애를 구성하는 개념의 측정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과 주체를 구성하는 개념인 “빈곤”, “공동체”, “부자”의 경우 동일하게 값이 커지는 추세가 관찰되었기에 군집화 결과에서도 함께 구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5] 기부 속성의 시간 분포



5. 결론

본 연구는 기부 문화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부 성격을 가로지르는 차원으로서 연민과 박애에 초점을 맞추었다.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으로 다섯 개의 속성을 제안하고 각 속성을 구성하는 두 개의 개념을 함께 제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차원과 개념을 활용하여 기사문을 대상으로 약 20년간의 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워드 벡터에 기반한 개념거리측정(CMD) 과정을 활용하여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전반적 수준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연민의 성격을 지니는 속성으로 설정한 “일시적”, “소극적” 성격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른 변이는 있으나 “불쌍함”에 대한 내용도 2009년 후반부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애의 성격을 지니는 “지속적”, “연대감”, “공동체”, “시민”의 속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기부에 관한 인식과 관심에서 보다 보편적인 속성을 지니는 박애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민의 속성을 구성한다고 상정한 “부자”, “빈곤” 또한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부 행위를 통해 옹호하고자 하는 집단으로서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부의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에서 “시민”, “공동체”의 성격 또한 커지고 있다는 점은 기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기부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차원별 추세에 대한 검토와 시기별 군집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사회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인 수준에서 연민에서 박애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부 주체와 그 대상, 지속성 등에 있어 한정적/임시적 성격에서 점차 보편적/체계적 성격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가 연민으로서의 기부 행위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나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기부 인식으로서 연민의 성격 또한 함께 변화하고 심도가 깊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한국의 기부 문화는 보편적 성격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성격이 부분적으로 보완, 유지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다양성이 커지는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강신주 (2013). 강신주의 감정수업-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민음사.
- Kisner, M. J. (2009). Spinoza's Benevolence: The Rational Basis for Acting to the Benefit of Other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47(4), 549-567.
- Taylor, M. A., & Stoltz, D. S. (2021). Integrating semantic directions with concept mover's distance to measure binary concept engagement. *Journal of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4(1), 231-242.
- Sinclair, S., Beamer, K., Hack, T. F., McClement, S., Raffin Bouchal, S., Chochinov, H. M., & Hagen, N. A. (2017). Sympathy, empathy, and compassion: A grounded theory study of palliative care patients' understandings, experiences, and preferences. *Palliative Medicine*, 31(5), 437-447.
- Stoltz, D. S., & Taylor, M. A. (2019). Concept Mover's Distance: Measuring concept engagement via word embeddings in texts. *Journal of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2(2), 293-313.